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에 초점을 둔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한·미 교과서 교육내용 검토(제1보)

서민지* · 이수희**1) · 손상희***

인천동양중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Educational Contents of ‘Understanding of self as an adolescent’ Unit to Build Adolescent Empowerment(I): comparison of Home Economics Textbooks of Korea and the U.S.

Suh, Min-Ji* · Lee, Soo-Hee**1) · Sohn, Sang-Hee***

*Home Economics Teacher, Incheon Dong Yang Middle School**

*Lecturer,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ducational contents of home economics textbooks that solely focus on forming adolescent empowerment. For this, an in-depth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home economics textbooks in Korea and the U.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23 content elements, which are designed to build adolescent empowerment, were ascertained: nine intrapersonal empowerment elements such as the self-identity, nine interpersonal empowerment elements such as the communication, and five social empowerment elements such as the leadership.

Second, based on the content elements selected from above, the textbooks in Korea were observed to deal with 58% of the 23 content elements, while those in the U.S. discussed 90% of the 23 content elements. Korean textbooks primarily focused on helping students understand major concepts, whereas the U.S. textbooks focused primarily on helping students make connections between major concepts and their life. Lastly, both countries put the least amount of weight on social empowerment content elements(Korea: 37%, U.S.: 70%).

1) 교신저자: Lee, Soo-Hee, San 56-1 Shillim-dong, Gwanak-gu, Seoul 151-742, Republic of Korea

Tel: 02-880-9052, Fax: 02-880-0710, E-mail: kywonk@unitel.co.kr

2)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로 2015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지원금을 받아 수행되었음

Key words: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 임파워먼트(Empowerment), 가정과 교과서(Home economics textbooks), 교육내용(Educational contents)

I. 서론

청소년은 진로문제, 진학문제 등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로, 자기를 형성해 가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따라서 자기 발견을 위한 충분한 고민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내야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Seo, 1986). 그렇지 못한 경우 청소년들은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자기가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기가 되어야 할 모습을 그려내지 못함으로써 심리적 부적응 및 비행에 쉽게 빠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Kim, Oh, & Yoon, 1991). 하지만 여러 연구들(Hyun & Kim, 1999; Bae, Kim, Jung, Kang, & Park, 2010; Han et al., 2012)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가출, 인터넷 관련 비행, 학교 폭력, 임신과 낙태 등 다양해지고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기회가 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이러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자신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진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임파워먼트는 대상자를 문제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 중심으로 봄으로써 그들이 가진 잠재적 역량 및 자원을 인정하고, 그들 내외에 회복력(resilience)이 있음을 전제하여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 혹은 힘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임파워먼트를 가진 청소년은 강한 자신감과 신념을 갖고 내재적 역량을 키울 있다. 아울러 커진 역량을 지각해서 자신의 가치관, 태도, 행동 등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집단과 조직으로 이전되어 자신의 환경까지 임파워시켜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실현할 수 있다(Kim, 2002a).

그런데 사회구성원인 인간의 의식개혁은 학교교육이라는 교육적 수단을 통해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특히 가정교과는 청소년을 가정생활의 주제로 하여 그들의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단초를 가지고 있는 교과이다. 왜냐하면 2009년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가정생활’ 영역의 목표로

“나와 가족을 이해하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활 능력을 함양하여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개인 및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기른다(MEST, 2011, p.5).”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의 생활, 청소년의 자기관리를 대단원으로 구성하여 청소년의 자율적인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청소년의 이해’ 단원은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을 돕기 위한 단원이다(MEST, 2011).

이에 가정교과가 ‘청소년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서라는 텍스트를 통해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학교교육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교수학습 도구로 국가의 교육이념과 시대의 정신, 교과의 철학이 반영된 산물이기 때문이다(Yoon, Mun, Chu, & Seok, 2010).

그러나 지금까지 가정교육을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청소년 관련 단원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강조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을 검토하거나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흥미도와 유용성을 분석한 교과서 연구들(Lee, 2010; Lee & Lee, 2011), 창의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청소년 동기 유발 전략의 적용 등에 기초하여 청소년 단원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한 연구들(Chung, Kim, & Park, 2005; Han & Chae, 2011)에 그치고 있다. 한편 가정교육에 임파워먼트 개념을 도입한 연구로는 가정교육의 미래 발전 전략을 탐색한 Park(2006)과 가정과 교사의 임파워먼트 측정도구 개발 및 요구도를 분석한 Park(2008) 총 2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정교육을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관점에서 접근하여,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교과서 검토를 통해 청소년 단원 본연의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보다 앞서 유사한 청소년 문제를 보이고 있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와 비교 분석

하여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에 초점을 둔 가정과 교육내용 선정 및 구성을 위해, 한국과 미국 가정과 교과서의 교육내용과 전달방법은 어떠한지 검토하여,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대안적 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 1보에서는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가정과교육 내용 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미 중학교 가정과 교과서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내용요소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계속해서 제2보에서는 같은 단원의 서술방식과 활동과제를 검토한 후, 제1보와 제2보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대안적 틀을 제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임파워먼트의 개념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접두어 'em'에 'power'를 혼합시킨 단어로 “~에게 힘 또는 권한을 주다.” 혹은 “~에게 능력이나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Kim, 2002a). 미국 빈곤지역의 소외받고 억압된 계층이 어떻게 사회구조적 차별과 무력감(powerlessness)을 극복하고, 민주적 권리를 얻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파워(power)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Solomon(1976)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파워먼트는 정치, 환경, 사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비록 각 분야별로 서로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긴 하지만 그 내면의 공통점은 파워가 박탈된 사람의 능력을 이해하여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힘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Park, 1997). 인간은 이와 같은 잠재된 힘을 찾아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효능감을 유지시켜 개인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이는 대인관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정치 및 사회적인 측면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Zimmerman, 1995; Bolton & Brooking, 1996; Parsons, 1999).

다시 말해 임파워먼트는 개인적인 심리나 정신내적 현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내재화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의미한다. 임파워먼트를 우리말로 번역한 '역량강화'는 임파워먼트의 위와 같은 의미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청소년 임파워먼트의 중요성

Brown(1978)은 비판적 관점에서 인간을 자주적, 비판적,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며, 능동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개념은 청소년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오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도 내부의 힘을 찾아 자신의 삶과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비판적 관점을 적용시켰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Kim(2002b)은 청소년들이 임파워된다면 청소년기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가 청소년의 긍정적인 변화와 역량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기 통제감과 같은 임파워먼트 형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성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임파워먼트 실천 활동의 효과성, 빈곤지역 흑인 남학생의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 해소에 정치·사회적 통제감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 연구 등이 있다(Grossman et al., 1992; Roberts-Gray et al., 1999; Zimmerman et al., 1999; Kim, 2002a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도 임파워먼트는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 소년원 청소년의 사회복귀적응, 스트레스 고위험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중학생의 게임중독과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Kim, 2002b; Gook & Kim, 2008; Lee & Nam, 2008; Joo & Park, 2010), 이렇게 결손이나 빈곤가정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Kim, 2006; Yu, 2008).

이러한 연구결과는 더 이상 청소년을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불완전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

나, 그들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신념을 강화하고 변화의 자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를 가진 존재로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3. 청소년 임파워먼트의 세 가지 영역

임파워먼트는 환경적 위협이나 박탈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처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이 가진 잠재력과 능력을 인식하여 스스로 자율성과 통제력을 갖고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이다. 이때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공동체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실천력까지 포함한다(Park, 1995).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내부의 힘을 찾아 결과적으로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정치·사회적인 영역에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Zimmerman, 1995; Bolton & Brooking, 1996; Parsons, 1999). <Table 1>은 임파워먼트의 세 가지 영역에 따른 각 하위요소를 나타낸다. 임파워먼트는 이 세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성과를 평가할 때는 세 영역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측정에 관한 Kim(2002a)의 연구에서도 여러 연구결과를 조합하여(Ahn, 1985; Zimmerman & Zahniser, 1991; Bolton & Brookings, 1998; Parsons, 1999) 임파워먼트를 세 영역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Kim(2002b)는 임파워먼트의 세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는 자기효능감 및 긍정적인 자기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자기수용, 자아존중감, 권리의식, 자아에 대한 믿음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는 다

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데, 자기를 남에게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 설정하기, 남으로부터 도움을 주고받기,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하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 동원하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환경에서 통제감을 발휘하기 위해 행동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라 하였다. 단,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에서 정치적인 부분은 가정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며, 이후 영역의 구분을 사회적 임파워먼트라 명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에 초점을 둔 가정과 교육내용 선정 및 구성을 위해, ‘청소년의 이해’ 단원이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 사회적 임파워먼트 세 영역을 모두 포괄한 균형 있는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미 교과서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분석단원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교과서는, 한국의 경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된 중학교 기술·가정 12종의 출판사 중,

Table 1. Three Sub-Categories of Empowerment

Intrapersonal Empowerment	Interpersonal Empowerment	Sociopolitical Empower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lf-Awareness • Self-Acceptance • Self-Assurance • Self-Esteem • Rights Awareness • Self-Effic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sertiveness • Delimitation • Favor • Asking for Help • Problem Solving • Resource Ac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s • Contributing to Returning to Society by Helping Others • Participation in Election, and An Expression of Opinions to the Masses • Exercising Control about Own Areas of Life

Source: The author arranged data based on Parsons(1999; Lee et al., Trans. 2002, p.401) and Gutierrez, Parsons, & Cox(1998; Kim et al., Trans. 2006, p.20).

사용 빈도가 높고 시장 점유율이 5%이상인 교과서 7종을 선정하여 ‘가정생활’ 영역만을 분석하였다. 미국 교과서의 경우는, 한국 교과서 내용 체제와 유사한, 인간발달과 가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 가정학 전 영역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 (comprehensive Family & Consumer Sciences) 중에서, 주로 6~8학년을 대상으로 한 최신교과서 4종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한국 교과서가 「기술·가정 1」과 「기술·가정 2」로 분리된 것에 비해, 미국 교과서는 학년 구분 없이 한권의 책으로 500페이지 이상의 두꺼운 하드커버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교육과정 이 개정될 때마다 교과서가 수시로 바뀌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교과서 검정제도가 없어 다수의 교과서가 큰 규제와 개정 없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출판된다. 이에 미국의 모든 교과서를 전집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지만 그 공통점이나 특징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대상이 된 교과서 목록은 <Table 2>와 같다.

2) 분석단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과서가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대안적 틀을 제시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한국 교과서는 중학교 「기술·가정 1」 대단원 중 ‘I. 청소년의 이해’ 단원과 더불어 ‘III.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을 주요 분석단원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이 두 단원의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략)...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른다(MEST, 2011, p.7).”와 같이 명시되어, 다른 단원에 비해 청소년의 자주성과 내적 역량 강화라는 임파워먼트 개념에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청소년의 성’ 단원은 미국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이며, ‘II. 청소년의 생활’ 단원은 효율적인 의·식·주·소비생활 관리 전략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기술·가정 2」 대단원 중 ‘I. 가족의 이해’ 단원에서 ‘의사소통’ 단원을 분석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왜냐하면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요소들이 미국 교과서는 ‘청소년 및 인간발달’ 단원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 교과서는 ‘가족’ 단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석단원 선정 방식에 기초하여 미국 교과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원을 <Table 3>과 같이 분석영역으로 하였다. 이렇게 분석범위로 선정된 단원들을 통칭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이해’ 단원이라 명명하였다.

2. 분석과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가정과 교육내용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 네 단계를 거쳐 분석기준을 정하고 교과서의 내용요소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가 우선 분석단원의 내용요소를 모두 추출한 뒤, 가정교과교육 전문가 3인(교과교육학 전공 교수 1인,

Table 2. Textbooks for Analysis

Country	No.	Textbook	Publisher	Abbr.	Author	Year
Korea	1	중학교 기술·가정 1, 2	(주)천재교육	CJ1	이춘식 외 10	2013
	2	중학교 기술·가정 1, 2	(주)천재교과서	CJ2	최유현 외 10	2013
	3	중학교 기술·가정 1, 2	원교재사	WK	김기수 외 15	2013
	4	중학교 기술·가정 1, 2	두산동아(주)	DS	정철영 외 15	2013
	5	중학교 기술·가정 1, 2	(주)비상교육	BS	김지숙 외 11	2013
	6	중학교 기술·가정 1, 2	(주)금성출판사	GS	조강영 외 13	2013
	7	중학교 기술·가정 1, 2	(주)지학사	JH	최완식 외 11	2013
U.S.	1	Applying Life Skills	Glencoe/McGraw-Hill	AL	Eubanks & Kelly-Plate	2010
	2	Building Life Skills	Goodheart-Willcox Co	BL	Liddell & Gentzler	2008
	3	Teen Life!: Living/Learning/Caring	Goodheart-Willcox Co	TL	Dunn-Strohecker & Tippet	2008
	4	Young Living	Glencoe/McGraw-Hill	YL	Clayton	2000

Note: ‘기·가 2: CJ1’ means the textbook published by Chunjaekyoyuk in 「Technology·Home Economics II」

Table 3. Units for Analysis

Korea		U.S.	
Textbook	Titles of Units	Textbook	Titles of Units
중학교 기술·가정 1	I. 청소년의 이해 1. 청소년의 발달 2.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 II. 청소년의 생활 1. 건강한 식생활과 식사구성 2. 옷차림과 자기표현 3. 주거와 거주 환경 III. 청소년의 자기관리 1. 청소년의 시간·스트레스 2. 청소년의 소비생활 3.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Applying Life Skills	I. You and Your World 1. Learning About Yourself 2. Character Development II. Exploring Careers III. Building Relationship Skills 1. Communication with others 2. Conflict Resolution 3. You and Your Peers
		Building Life Skills	I. Learning About Yourself 1. Growing and Changing 2. Your Personality 3. Challenges You Face 4. Communicating with Others 5. Your Family 6. Your Friends II. Managing Your Life 1. Getting Ready to Manage 2. Managing Your Resources 3. Managing Time, Energy, and Money
		Teen Life!: Living/Learning/ Caring	I. You and Others 1. Learning About You 2. Learning About Children II. You - a Manager 1. Making Decisions 2. Managing Daily Living 3. Managing Your Living Space 4. Living for Tomorrow
중학교 기술·가정 2	I. 가족의 이해 1.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2. 가족 관계와 의사소통 II.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III. 진로와 생애설계	Young Living	I. Personal Development 1. The Unique You 2. Everyday Living Skills 3. Steps to Success 4. Careers II. Relationships 1. Your Family and Friends 2. Understanding and Caring for Children

Note: Analyzed units were shaded, and the units of 'clothing·food·housing' in the U.S. were dropped.

교직 경력 12년의 가정교육 박사과정 교사 1인, 교직경력 9년의 가정교육 박사과정 교사 1인)에게 해당 자료를 제시하고 Parsons(1999)의 임파워먼트 세 영역에 대응하여 분류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를 포함한 4인의 분류 결과를 토대로 3차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불일치 판정부분에 관하여 토론 및 협의 후 최종적으로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교과서 분석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출판사별로 교과서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Baldwin(1990), Kim(2002b), Kim, Cho와 Nho(2004)의 임파워먼트 개념을 기초로 Ahn(1985), Bolton과 Brookings(1998), Peterson 외(2006)의 임파워먼트 척도문항 분석을 통해, 각 영역에서 교육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Parsons(1999)의 임파워먼트 하위요소에 대응시켜 <Table 4>와 같이 구체화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가진 잠재력과 능력을 인식하여 정체성을 발견하는 내용으로,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는 인간존중을 기초로 타인과의 상

호작용과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삶의 자율성과 통제력을 갖고 공동체의 변화를 꾀하는 내용으로 구체화하였다.

2단계: <Table 4>의 교육내용을 가정교과의 특성에 맞는 내용요소로 재구성하기 위해 먼저, 한·미 중학교 가정과 교과서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키워드와 색인으로부터 내용요소를 모두 추출한 후 한국 교과서 7종 중 5종, 미국 교과서 4종 중 3종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빈출하는 내용요소를 하나로 취합하였다 (<Table 5> 참조). 이때 키워드는 교과서 본문 중 볼드체로 표기되어 있거나, 별도로 용어사전과 같은 코너에서 추출했다.

3단계: 2단계에서 추출한 가정과교육 공통 내용요소들 <Table 4>를 준거로 하여, 임파워먼트 세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요소로만 선정하여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 발달에 대한 내용은 자기인식과 관련한 개념이므로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한 가정과교육 내용요소로 분류하였고,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기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

요소로 분류하였다. 또한 도덕성이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사회적인 행동을 의미하므로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요소로 분류하였다.

4단계: 3단계의 연구결과를 분석기준으로 하여, 한·미 교과서에서 각 내용요소의 포함여부를 교과서별로 체크하며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가정과교육 내용요소 선정

Parsons(1999)가 제시한 임파워먼트 세 하위요소를 가정교과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이해’ 단원에서 공통적으로 빈출하는 내용요소만 추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4. Educational Contents by Three Sub-Categories of Empowerment

<Table 1>		Educational Contents
Category	Components	
Intrapersonal Empower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lf-Awareness • Self-Acceptance • Self-Assurance • Self-Esteem • Rights Awareness • Self-Efficacy 	Understanding of yourself, Positive self-awareness and belief, Establishment of individual's strengths, Faith in your own abilities, Working toward a goal, Willingness to challenge, Improving your independence, Emotional stability, Stress reduction, Consciousness of right
Interpersonal Empower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sertiveness • Delimitation • Favor • Asking for Help • Problem Solving • Resource Access 	Interest in the neighborhood, Sociality enhancement, Understanding in others' place and accepting opinions, Expressing own opinions or feelings effectively, Exchanging help with others, Good communication,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Ability to solve conflicts, Problem solving strategy, Understanding and using your resources for goal attainment
Social Empower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s • Contributing to Returning to Society by Helping Others • Participation in Election, and An Expression of Opinions to the Masses • Exercising Control about Own Areas of Life 	Developing a moral orientation toward social issues and taking collective action, Recognizing problems of local society and showing leadership, Recognizing social contradiction suppressing you and introspecting rationally, Recognizing a community-wide goal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having a responsibility, Acting to change by exercising control about social environment

Table 5. Content Elements of Unit on 'Understanding of self as an adolescent'

Country	Common Content Elements
Korea	청소년기 신체발달(성장급등, 2차 성장, 성장의 개인차), 청소년기 인지발달(가설적·추상적·종합적·자기중심적 사고), 도덕성, 정서, 사회성, 성역할(심리적 양성성),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친구(우정, 이성교제), 또래(동조), 시간(자원, 관리단계), 생활시간분류(생리적·노동·여가생활시간), 스트레스(종류, 관리방법), 청소년복지(의미, 필요성), 청소년관련법(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서비스(상담, 교육문화·자원봉사·수련활동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서비스), 의사소통(언어적, 비언어적), 적극적 경청, 나 전달법, 가족 갈등
U.S.	Adolescence, Development, Personality, Heredity, Environment, Emotion, Stress, Value, Goal, Self-Concept, Self-Esteem, Self-Confidence, Resource, Management, Priority, Procrastination, Decision Making, Needs, Wants, Alternatives, Evaluate, Consequences, Communication, Body Language, Active Listening, Assertiveness, Stereotype, Prejudice, Conflict Resolution, Respect, Compromise, Roles, Friends, Peer Pressure, Independence, Leadership, Responsibility, Citizenship

먼저, 한국과 미국 교과서의 내용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교과서는 출판사별로 단원명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적으로 청소년기 신체적, 인지적, 정서·사회적 발달 특성의 이해,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 형성, 우정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친구관계 형성, 시간 및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자신의 생활환경 개선, 청소년 복지 서비스 탐색 및 활용, 바람직한 의사소통 및 가족 갈등해결을 통한 가족관계 향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한편, 미국 교과서는 유전과 환경으로부터 습득되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탐색하고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 자신이 가진 자원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법 및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여 최선의 판단을 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학습,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통해 타인과의 책임 있는 관계와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추출한 공통 내용요소를 <Table 4>를 준거로 하여, 임파워먼트 세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요소로만 선정하여 분류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가정과교육 내용요소는 총 23개로,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요소로는 발달, 가치와 목표, 자아정체감 등 9개가 있었으며,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요소로는 사회성, 의사소통, 갈등해결 등 역시 9개의 내용이 있었다. 또한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요소로는 도덕성, 리더십, 책임감 등 5개가 선정되었다.

각 내용요소에 대한 의미 및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는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기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가정과교육에서 발달, 개성, 유전과 환경, 가치와 목표,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신감, 정서, 스트레스라는 내용요소로 다루어 질 수 있다. 청소년기 '발달(development)'에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

Table 6. Content Elements in Home Economics Education to Build Adolescent Empowerment

	Intrapersonal Empowerment	Interpersonal Empowerment	Social Empowerment
Content Elements in Home Economics Education	Development	Sociality	
	Personality	Roles	
	Heredity & Environment	Friends	Morality
	Value & Goal	Communication	Independence
	Self-Identity	Conflict Resolution	Leadership
	Self-Esteem	Decision Making	Responsibility
	Self-Confidence	Needs & Wants	Citizenship
	Emotion	Resource Management	
	Stress	Priority	

1) 본 연구는 미국 교과서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얻는 연구이므로, 교과서 분석 시 의미 있는 문장은 가능한 영어 원문을 병기하여 뜻을 분명하게 하고 추후 교과서 집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적 발달이 있다(BL, p.3; GS, p.11). 본 연구에서는 발달이라는 개념을 성장급등, 2차성징과 같은 신체적 발달과 추상적 사고, 자기중심적사고와 같은 인지적 발달에 한정하였으며,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발달은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개성(personality)'은 개인을 고유하게 만드는 특성들의 묶음(TL, p.13)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heredity)'적 특징과 가정, 이웃, 학교와 같은 '환경(environment)'에 의해 후천적으로 습득된 타인과는 다른 외모, 사고, 행동을 말한다. '가치(value)'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며 중요한지 아는 것(YL, p.55)으로, 삶의 '목표(goal)'를 세우고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드는 내용을 의미한다. '자아정체감(self-identity)'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 신체특성, 능력, 욕구, 가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CJ2, p.22)으로 한·미 모두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을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다루고 있었다. 단, 미국 교과서는 4중 모두 자아정체감 대신 정신적 자아상(mental image)인 '자아개념(self-concep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자아개념을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여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기 존재에 대한 느낌(TL, p.16)으로 자아개념이 자신에 대한 인지적 측면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감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BS, p.23), 이들은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다(Having a positive self-concept and good self-esteem creates self-confidence. TL, p.16). '자신감(self-confidence)'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YL, p.19)으로 성공 경험에 의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정서(emotion)'는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쁨, 사랑, 슬픔, 분노, 불안 등의 감정 상태(CJ1, p.22)로 청소년기 불안정한 정서조절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스트레스(stress)'는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느끼는 신체적, 심리적 긴장 상태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말하는데(CJ1, p.132; Stress is the mental or physical tension you feel when faced with change. It is a natural part of everyday living. BL, p.30), 자신의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포함한 내용이다.

둘째, 대인관계적 입파워먼트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기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가정과교육에서 사회적, 역할,

친구, 의사소통, 갈등해결, 의사결정, 필요와 욕구, 자원관리, 우선순위는 내용요소로 다루어 질 수 있다. 각 내용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성(sociality)'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고 적응해 가는 특성을 말한다(DS, p.14). 단, 미국 교과서의 경우 사회성 대신 사회적 발달(social develop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AL, BL, TL), 청소년기는 사회적 발달을 통해 관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발달하게 된다(BS, p.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과 사회적 발달을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여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역할(roles)'은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행동하는 방식(YL, p.8)으로, 한 개인이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개념이다. '친구(friends)'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을 바탕으로 즐거움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동반자(JH, p.37)로서, 청소년기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동성과 이성 친구 간의 우정을 맺고 유지하는 방법 및 부정적인 포래압력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대인관계를 강화하는 가치 있는 기본기술이다(Good communication is the foundation of strong relationships and a valuable skill. AL, p.137). 따라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종류, 적극적 경청의 중요성,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요령, 고정관념과 편견이라는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기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에서 갈등은 다양한 사람들 간에 올바르게 못한 의사소통 등이 원인이 되어 대인관계에서 의견충돌이나 문제가 발생함을 의미하는데(Conflicts are disagreements or problems in a relationship. BL, p.50), 상호간의 존중이나 타협과 같은 해결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한다.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필요와 욕구를 고려한 최선의 선택을 한 후, 행동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개념이다(YL, p.67). 이때 '필요(needs)'란 의식주, 안전, 소속감 등 인간의 생존과 웰빙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며(AL, p.47), '욕구(wants)'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갖고 싶은 것(AL, p.47)으로, 친구나 광고 등의 요인에 의해 자신의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필요와 욕구는 가치, 목표와 관련하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과 자원관리를 할 때 선택의 기초가 되므로 대인관

계적 임파워먼트를 기르기 위한 내용요소로 분류하였다. ‘자원 관리(resource management)’에서 자원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산(TL, p.125)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관리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원의 종류를 이해하고, 특히 시간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일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우선순위(priority)’를 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셋째, 사회적 임파워먼트는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가정과교육에서 도덕성, 독립심, 리더십, 책임감, 시민의식이라는 내용요소로 다루어 질 수 있다. 각 내용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덕성(morality)’은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GS, p.14).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서 도덕성이 발달하게 되므로(CJ1, p.21), 도덕성 대신 도덕적 발달(moral development, AL) 혹은 윤리적(ethics, TL)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였다. ‘독립심(independence)’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BL, p.11)을 의미하는데, 자립이란 용어를 사용한 경우(CJ1, GS)도 동일하게 간주하였다. ‘리더십(leadership)’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YL, p.39)으로 이때 리더는 자원관리,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최선의 목표 달성과 올바른 행동에 가치를 두고 헌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국 교과서에서 지도력이라 표현한 경우(CJ2, WK)도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였다. ‘책임감(responsibility)’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AL,

p.39)으로, 개인적인 의사결정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자원이거나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Responsibilities include respecting public and private property and showing concern for the environment. YL, p.61)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민의식(citizenship)’에서 시민이란 학교, 도시, 국가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AL, p.41)으로, 시민의식은 책임과 권리의식을 갖고 공동체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식 대신 공동체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CJ1, DS)도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여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2. 한·미 중학교 가정과 교과서 내용요소 비교분석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가정과 교육내용이 실제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able 6>을 분석기준으로 하여 한·미 중학교 가정과 교과서에서 각 내용요소의 포함 여부를 교과서별로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경향은 <Figure 1>과 같다. 한국과 미국의 교과서는 ‘청소년의 이해’ 단원에서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23개의 내용요소 중 70%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국가별로 비교해봤을 때 한국은 58%, 미국은 90%로, 미국 교과서가 한국 교과서보다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내용요소를 약 1.5배 이상 많이 다루고 있었다.

임파워먼트 각 영역별 경향을 살펴보면, 한국 교과서는 대인 관계적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요소가 71%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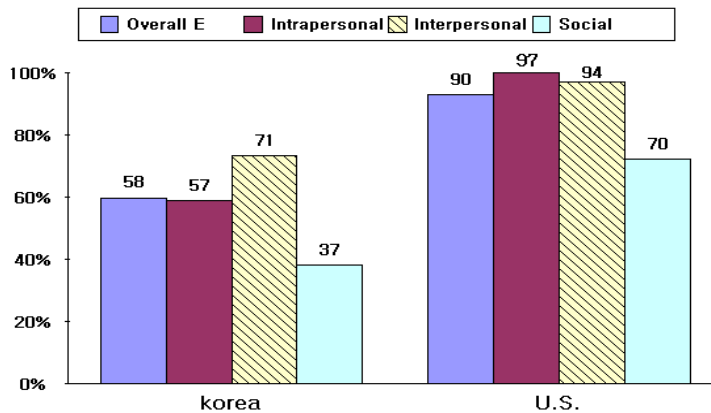


Figure 1. Tendency of Content Elements for Adolescent Empowerment in Home Economics Textbooks

많았고 개인내적 57%, 사회적 37% 순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요소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교과서는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내용요소가 각각 97%, 94%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내용요소는 70% 반영하고 있었다. 각 영역별 내용요소의 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내용요소의 경향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한 9개 내용요소가 한·미 교과서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우선 양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한국 교과서는 발달,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정서, 스트레스 등 9개 요소 중 5개 요소만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으며(57%), 미국 교과서는 9개 내용요소를 거의 모든 책에서 다루고 있었다(97%). 또한 한국 교과서 7종과 미국 교과서 4종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내용요소는 발달, 자아정체감, 정서 3개 요소였으며, 개성, 유전과 환경, 가치와 목표, 자신감 등의 요소는 한국 교과서에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 교과서에 반영된 각 내용요소별 특징을 질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다음 몇 가지 특징이 확인되었다.

첫째, 한국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발달, 자아정체감, 자아존중

감, 정서, 스트레스 등 각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한편 미국 교과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개념 이해를 통해 자기인식과 자기수용의 개념까지 관련지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이해' 단원에서 청소년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출판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국 교과서는 전체 페이지 중 7~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미국 교과서는 1~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한국 교과서는 청소년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 특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미국 교과서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개성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인식하여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를 기르는 데까지 연결시키고 있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교과서가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본문내용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 지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교과서는 7종 모두 청소년기 신체적 발달에 대한 개념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으나, 미국 교과서는 개인의 독특성을 언급하면서 단원을 시작하고 있었다.

너는 고유한 단 하나의 존재로 타인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다(You are unique - one of a kind. You are special and different from all others. YL, p.4).

너는 개성 있고 특별한 사람이다. 전 세계 어떤 인간도

Table 7. Tendency of Content Elements to build Intrapersonal Empowerment

Category	Content Elements	Korea								U.S.				
		CJ1	CJ2	WK	DS	BS	GS	JH	Sum	AL	BL	TL	YL	Sum
Intra personal E	Development	○	○	○	○	○	○	○	7	○	○	○	○	4
	Personality	△	△	△	△	△	△	△	0	○	○	○	○	4
	Heredity & Environment	△	X	△	△	△	△	△	0	○	○	○	○	4
	Value & Goal	△	△	△	△	○	△	△	1	○	○	○	○	4
	Self-Identity	○	○	○	○	○	○	○	7	○	○	○	○	4
	Self-Esteem	○	X	○	○	○	○	○	6	○	○	○	○	4
	Self-Confidence	△	○	X	△	△	△	△	1	○	○	○	○	4
	Emotion	○	○	○	○	○	○	○	7	○	○	○	○	4
Stress	○	○	○	○	○	○	○	7	○	○	○	△	3	
Total		5	5	5	5	6	5	5	36	9	9	9	8	35
Ratio of Content Elements for Intrapersonal Empowerment		57%								97%				

Note1: 'O' is a case that a relevant content factor is clearly written in keyword and index, or is suggested as a key concept of a small unit or more than one paragraph of a textbook. '△' is a case that it is showed in at least one sentence or as a key concept of other big unit by summing up the body and activity task of supplementary material, so it is possible to develop into a class that is an issue of a relevant content factor. 'X' is not suggested in a textbook.

Note2: Total is adding the number of 'O', and % means a ratio of 'O' by each category.

너와 똑같지 않다(You are an individual, a special person. No other human being in the whole world is just like you. TL, p.13).

너와 똑같은 감정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with your exact feelings and ideas. BL, p.3).

이와 같이 미국 교과서는 개인이 가진 고유한 특징들이 모여 인간의 개성(personality)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후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개념인 자아정체감이라는 내용요소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었다. 물론 일부 한국 교과서에서도 신체상 혹은 신체이미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체 발달과 긍정적 자기인식을 연결하려고 한 노력이 보였다(CJ1, p.17; CJ2, p.14; WK, p.16; DS, p.10; BS, p.15; JH, p.13).

신체 변화와 성장의 개인자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자신의 신체를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CJ1, p.17). 통계청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신체 이미지 왜곡 현상을 살펴보고, 이것이 심해질 경우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WK, p.16).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행복감이 높지만, 부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자신감을 잃거나 고민에 빠질 수 있다. 나의 신체상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보자(JH, p.13).

둘째, 한국 교과서는 학생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미국 교과서는 학생들이 자기이해를 목적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탐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는 자신에 대한 이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도전하려는 의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즉,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아는 것은 타인과는 다른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가치는 사랑, 정직, 건강, 우정과 같이 자기 삶의 방향

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나의 모든 사고와 언행은 가치의 영향을 받는다(Values are the guidelines for how you live your life. Everything you think, do, or say is affected by your values. BL, p.89).

가치는 나의 일부이며,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다(Your values are a part of you. TL, p.131; People have different values. YL, p.56).

이와 같이 미국 교과서는 4종 모두 이러한 가치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치의 개인차에 대한 내용부터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고민까지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 교과서는 가치를 중심 개념으로 한 단락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일부 교과서의 경우 가치라는 내용요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큰 돌과 작은 돌의 이야기(CJ2, p.122; JH, p.112)²⁾’를 통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수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목표란 자신이 하고자 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가치에 기초를 두고 설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에 가치를 둔 사람은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 시간, 돈과 같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YL, p.72-73). 이처럼 미국 교과서는 자기이해를 목적으로 자신의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장단기 목표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 교과서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표에 따른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WK, p.122).”와 같이 7종 교과서 모두에서, 시간관리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목표 설정을 다루고 있었다. 즉, 자신의 목표를 탐색하는 것이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를 실현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한국 교과서에서도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CJ1, 27).”, “청소년기는 삶의 목표를 세우고 인생의 설계가 이루어지는 시기다(CJ2, 22).”와 같이 목표 설정과 자아정체감을 관련지어 서술

2) 항아리에 큰 돌부터 채워야 자갈, 모래, 물까지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로, 시간을 관리할 때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화이다.

하고 있었다. 특히 BS 교과서는 대단원의 마무리에서 '청소년의 자기 관리 탁상 계획표 만들기' 활동을 통해, 먼저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적어보는 등, 목표 설정과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을 관련지어려고 한 노력이 보였다(BS, p.156).

셋째, 한국과 미국 교과서 모두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길러야 하는 자기통제력, 나아가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과는 관련짓지 못하고 있었다.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는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자기통제력과 효능감을 기르고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단원의 지향점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청소년기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에 두고 있다.

청소년기의 건강한 자아 정체감은 그들의 주요 생활 장면인 학업과 여가 활동의 합리적 계획을 통한 생활의 자기 관리에서 비롯되므로 자신의 시간 및 여가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실제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MEST, 2008, p.229).

그러나 한국과 미국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원인, 종류, 효율적인 대처 방법만 나열하여 자신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물론 일부 한국 교과서에서는 “청소년기에는 스트레스를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한다(JH, p.116).”와 같이 스트레스 조절과 자기효능감을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었다. 특히 BS 교과서는 스트레스의 의미, 원인, 관리방법이 적힌 주사위를 만들어 굴러 보고 이들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성취를 향한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활동과제를 제시하여(BS, p.125)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을 연관시키려는 노력이 보였다.

2)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내용요소의 경향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한 9가지 내용요소가 한·미 교과서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우선 양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한국 교과서는 사회성, 역할, 친구, 의사소통, 갈등해결, 우선순위 등 9개 요소 중 6개 요소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으며(71%), 미국 교과서는 9가지 내용요소를 거의 모든 책에서 다루고 있었다(94%). 한편 한국 교과서는 의사결정, 필요와 욕구에 관련된 내용을 미흡하게 다루고 있었다. 또한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의 경우, 청소년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술·가정 1」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기술·가정 2」 「I. 가족의 이해」 대단원에서 가족 내 의사소통과 갈등에

Table 8. Tendency of Content Elements to build Interpersonal Empowerment

Category	Content Elements	Korea								U.S.				
		CJ1	CJ2	WK	DS	BS	GS	JH	Sum	AL	BL	TL	YL	Sum
Interpersonal Empowerment	Sociality	○	○	○	○	○	○	○	7	○	○	○	△	3
	Roles	○	○	○	△	○	○	○	6	○	○	△	○	3
	Friends	○	○	○	○	○	○	○	7	○	○	○	○	4
	Communication	⊕	⊕	⊕	⊕	⊕	⊕	⊕	(7)	○	○	○	○	4
	Conflict Resolution	⊕	⊕	⊕	⊕	⊕	⊕	⊕	(7)	○	○	○	○	4
	Decision Making	X	X	△	X	X	△	X	0	○	○	○	○	4
	Needs & Wants	△	△	X	△	△	△	△	0	○	○	○	○	4
	Resource Management	△	△	△	○	○	○	○	4	○	○	○	○	4
Priority	○	○	○	○	○	○	○	7	○	○	○	○	4	
Total		6	6	6	6	7	7	7	45	9	9	8	8	34
Ratio of Content Elements for Interpersonal Empowerment									71%					94%

Note: '⊕' is not suggested in 「Technology·Home Economics I」, but it is showed as a key concept of the unit on 'Understanding of Family' in 「Technology·Home Economics II」

초점을 두고 7종 교과서 모두에서 다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 교과서에 반영된 각 내용요소별 특성을 질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다음 몇 가지 특징이 확인되었다.

첫째, 한국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성역할이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의 전형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한편 미국 교과서는 역할의 범위도 다양하고,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학생 스스로 탐색하도록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할이란 자신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기대되어지는 행동양식으로,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해나가는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기초가 된다. 이에 미국 교과서는 가정에서 자녀로서의 역할, 학교에서 모둠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지역사회에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예로 들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어떻게 역할을 수행해야할 지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너는 누군가에게 롤 모델이 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You may be a role model for someone else. How can you make sure that your role is a positive one? YL, p.8)

너는 중요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관찰하면서 너의 역할을 습득할 수 있다(You learn your roles by talking to and watching people who are important to you. YL, p.8).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조직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 네가 가진 시간과 지식을 나눔으로써 긍정적인 롤 모델이 될 수 있다(You can join an organization that helps younger children find positive role models. Sharing your time and knowledge with others strengthens your community. AL, p.184).

이에 비해 한국 교과서는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특성을 의미하는 성역할과 부모·자녀·형제와 같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의 전형 및 가정 내 가사역할분담에 한정하여 서술하고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한국 교과서에서 청소년기 심리적 양성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은, 미국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만연

한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현재의 성역할 변화를 인식하고 양성성을 갖추어 상황에 따라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CJ1, p.25)

청소년기에는 양성평등 의식에 기초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성 조화 속에서 자기 주체성을 탐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WK, p.25)

둘째, 한국 교과서는 학생들이 또래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는 전략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한편 미국 교과서는 다양한 친구관계 속 변화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중점을 두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가는 데 필요한 전략을 학생 스스로 만들어 내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는 인간 존중을 기초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등 사회적 향상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청소년기 친구관계에서 익힌 다양한 인간관계 기술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만한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이 되므로(DS, p.33), 친구라는 내용요소는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이다. 한국과 미국 교과서 모두 청소년기 친구관계의 중요성과 새로운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미국 교과서의 경우 상당히 많은 페이지에 걸쳐 친구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면서³⁾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친구의 범위에 있어서 한국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연령이 같은 또래에 한정하고 있었지만 미국 교과서는 연령이나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넓은 개념에서 친구를 정의하고 있었다. 이는 타인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혀 사회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AL, p.184). 예를 들어, 어린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롤 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의 경험이 현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AL, p.184).

친구는 다른 연령, 모습, 인종, 그리고 많은 사회적 계층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Friends can come in different ages, shapes, colors, and from many different walks of life. AL, p.184).

3) 미국 교과서는 AI(21/124), BL(13/95), TL(9/89), YL(11/106)과 같이 '청소년의 이해' 단원 중 대략 11~17%를 친구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같은 또래이지만 몇몇은 어리거나 나이가 많을 수 있다(Most of your friends may be your age, but some may be younger or older. BL, p.70).

또한 친구관계 형성에 있어서 한국 교과서는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미국 교과서는 친구관계의 변화 가능성, 건강한 방법으로 우정을 마무리하기와 더불어 자기주장, 한계설정을 통한 또래압력에 대처하기 등을 다루면서, 친구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물론 일부 한국 교과서에서도 집단 따돌림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고 원인과 해결방법 논술하기와 같이, 또래압력의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고 통제하기 위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었다(WK, p.54; BS, p.49; JH, p.38).

셋째, 한국 교과서는 학생들이 가족관계 속 의사소통 기법과 갈등해결 전략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한편 미국 교과서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원활한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대인관계적 인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필수 개념이다. 따라서 특정한 관계에 한정하여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나열하기 보다는 소통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이에 미국 교과서는 매일의 삶에서 상호작용하게 되는 넓은 관계의 측면에서 의사소통과 갈등을 다루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갈등의 원인을 가족 내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 성격, 무시, 질투, 부정적 감정, 의사소통 부재 등 일반적 원인을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AL, pp.156-157; YL, p.142). 이에 비해 대부분의 한국 교과서는『기술·가정 2』 ‘가족의 이해’ 단원에서 가족관계 속 의사소통 기법과 갈등해결 전략을 전달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한국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족의 이해’ 단원의 성취기준을 “바람직한 의사소통 능력 및 갈등해결 능력을 길러 가족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고, 이를 친구, 교사, 이웃 등 다양한 관계에 적용하여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MEST, 2011, p.14).”와 같이 명시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까지 확장하여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

는 교과서도 있었다.

나와 우리가족, 이웃, 사회가 건강한 의사소통 방법을 실천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생각해보자(기·가 2: WK, p.46).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마을의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참여해보으로써 이웃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기·가 2: DS, p.27).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기·가 2: CJ1, p.42).

또한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강조하고 좋은 친구관계와 사제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도록 한다든지(기·가 2: BS, p.43), “상대방의 의견이나와 조금 다르다고 하여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로 다름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다름 그 자체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기·가 2: BS, p.39).”와 같이 기술적인 전략 이외에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태도에 초점을 둔 교과서 서술도 보였다.

넷째, 한국 교과서는 학생들이 효율적인 구매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한편 미국 교과서는 최선의 선택을 통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의사결정은 선택에 대한 행동(AL, p.45)으로서 그 결과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AL, p.48), 자신이 가진 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대인관계적 인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중요한 개념이다. 이에 미국 교과서는 4종 모두에서 의사결정과정을 다루고 있었으며, 도덕적 가치를 반영한 실천적 문제해결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었다(AL, p.50). 또한 필요와 욕구를 키워드로 하여 이 둘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욕구는 생존을 위해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고자 원하는 것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친구, 광고, 미디어 등 주변에 현혹되지 않고 필요와 욕구를 구별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TL, p.121; BL, pp.85-88). 반면 한국 교과서는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보다는 ‘청소년의 소

Table 9. Tendency of Content Elements to build Social Empowerment

Category	Content Elements	Korea								U.S.				
		CJ1	CJ2	WK	DS	BS	GS	JH	Sum	AL	BL	TL	YL	Sum
Social	Morality	○	○	○	○	○	○	○	7	○	X	△	△	1
	Independence	△	△	△	△	△	△	△	0	○	○	○	△	3
	Leadership	X	△	△	X	X	△	X	0	○	△	○	○	3
E	Responsibility	△	△	△	○	○	△	○	3	○	○	○	○	4
	Citizenship	○	△	○	△	○	X	X	3	○	△	○	○	3
Total		2	1	2	2	3	1	2	13	5	2	4	3	14
Ratio of Content Elements for Social Empowerment									37%					70%

비생활' 단원에서, 효율적인 구매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필요와 욕구에 대한 부분도 미흡하게 다루고 있었다. 다만, 일부 교과서의 경우 청소년의 공통적인 욕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청소년 복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개인적인 욕구와 보편적인 욕구를 구별하는 활동(DS, p.126)을 통해 필요와 욕구를 구별하는 수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3) 사회적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내용요소의 경향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한 5가지 내용요소가 한·미 교과서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우선 양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한국 교과서는 5개 요소 중 1개 요소인 도덕성에 관한 내용만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37%), 리더십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미국 교과서는 5개 요소 중 4개 요소인 독립심, 리더십, 책임감, 시민의식에 관한 내용은 거의 모든 책에서 다루고 있었으나(70%), 도덕성에 관한 내용은 미흡하게 다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 교과서에 반영된 각 내용요소별 특징을 질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다음 몇 가지 특징이 확인되었다.

첫째, 한국 교과서에 비해 미국 교과서는 자신의 삶에서 통제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사회적 임파워먼트는 자율성과 통제력을 갖고 공동체의 변화를 피하기 위해 지도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미국 교과서는 독립심이라는 내용요소를 다루고 있는데, 독립적인 사람은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발휘하여 자기 행동의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을 하게 되며(BL, p.11), 그 결과 사회적 참여까지 이어지게 되므로, 독립심은 사회적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기초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교과서에서는 독립심을 “청소년기에는 독립성이 발달하여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CJ2, p.40).”와 같이 단지 부모로부터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념으로 다룬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일부 교과서의 경우, “청소년기 다양한 발달을 거치면서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DS, p.8).”, “청소년과 어른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이 발달한다(JH, p.20).”와 같이 독립심을 자율성이나 통제력과 관련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리더십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이끌어 가는 능력(YL, p.39)으로 한국 교과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았지만, 미국은 리더십 기술, 리더십 기회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청소년기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아울러 리더가 되는 것을 어렵거나 거창하게 여길 필요가 없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이미 리더일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에서 형이나 누나의 역할을 하는 것도 리더이며, 수업 중 모둠활동에서 조장을 하는 것도 리더로 보았다(BL, p.470). 즉, 리더로 태어난 사람은 없지만 매일의 활동을 통해 리더십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 경험이 미래 사회에서 리더로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물론 일부 한국 교과서에서도 한 문장에 불과하긴 하지만 리더십이란 개념을 다루려고 노력한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지도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CJ2, p.163; WK, p.152).

글로벌 리더십은 다양성을 수용하여 개방적 태도와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S, p.133).

둘째, 한국 교과서에 비해 미국 교과서는 사회적 책임감과 시

민의식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사회적 임파워먼트는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문제 인식과 사회적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책임감은 개인적 의사결정에서 뿐만 아니라 타인, 더 나아가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하는 개념(YL, pp.60-61)으로, 자신이 한 선택이 개인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교과서 모두 사회적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교과서의 중심 개념이라기보다는 단원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으로 자칫 소홀하게 다루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비해 미국은 4종 교과서 모두 여러 단원에서 책임 있는 친구 관계, 책임 있는 의사결정, 책임 있는 리더, 책임 있는 시민과 같이 책임감이라는 개념을 다른 임파워먼트 관련 개념과 함께 다루고 있었다.

또한 시민의식은 책임과 권리의식을 갖고 공동체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는 것으로, 미국 교과서에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AL, p.41).”라고 서술하면서 청소년기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라디오 접하기, 이웃에 피아노 가르치기, 재활용 옷 수거하기, 학교 공공기물 소중히 다루기, 병원에서 봉사하기, 작은 기부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하기와 같이 사회 참여를 통해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적극적인 봉사가 가능한 기관까지 안내하고 있었다(AL, p.42; BL, p.477; YL, p.37). 물론 일부 한국 교과서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은 공동체 의식 강화와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에 도움을 준다(CJ2, p.163).”와 같이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공동체의식을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중심 개념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단원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에 불과하였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정생활’ 영역의 학습 지향점으로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명시하고 있다(MEST, 2011, p. 4). 하지만 그 어떤 교과서에서도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핵심 내용요소로 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는 별도의 소단원을 전개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이해’ 단원 중 사회적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내용요소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단원이었다. 하지만 이 단원에서도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청소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 관점에서

서술하기 보다는, 청소년 복지의 의미와 필요성, 청소년 관련법,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소개하는데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회적 자원을 확인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청소년이 가진 잠재적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관점에서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단원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일부 교과서의 경우 이 단원을 재구성하여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형성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다. 12가지 청소년의 권리를 통해 시민의식을 독려하고 자신만의 청소년 현장을 만들어보는 활동까지 연계한 교과서(BS, p.150)가 그 예이다. 특히 청소년 복지서비스로 자원봉사활동과 수련활동을 소개하면서, 정보 소개에 그치지 않고 이들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어 개인내적으로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대인관계적으로는 타인과의 연대감을 형성하며, 사회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을 기를 수 있음을 강조한 교과서(CJ1, p.163; WK, p.152)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에 초점을 둔 가정과 교육내용 선정 및 구성을 위해, 한국과 미국 가정과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어떠한지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7종과 6~8학년 미국 교과서 4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내용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가정과 교육내용을 분석한 결과 23개의 내용요소를 선정하였다.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내용요소로는 발달, 개성, 유전과 환경, 가치와 목표,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신감, 정서, 스트레스의 9개, 대인관계적 요소로는 사회성, 역할, 친구, 의사소통, 갈등해결, 의사결정, 필요와 욕구, 자원관리, 우선순위의 9개, 사회적 요소로는 도덕성, 독립성, 리더십, 책임감, 시민의식의 5

개가 선정되었다.

둘째, 이를 기준으로 한·미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교과서는 23개의 내용요소 중 58%, 미국 교과서는 90%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한국의 교과서는 학생들이 청소년 임파워먼트 관련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한편 미국의 교과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개념들과 학생들의 삶을 관련짓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미 교과서 모두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요소를 가장 적게 다루고 있었다(한국: 37%, 미국: 70%).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23개의 가정과교육 내용요소를 교과서에 고르게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 중학교 가정과 교과서 ‘청소년의 이해’ 단원에서 공통으로 빈출하는 내용요소를 추출한 결과, Parsons(1999)가 제시한 임파워먼트 세 하위요소와 유사한 의미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정과교육이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이라는 교육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교과임을 시사한다. 다만 한국 교과서는 개성, 유전과 환경, 가치와 목표, 자신감, 의사결정, 필요와 욕구, 독립심, 리더십과 같은 일부 내용요소들이 부족하여, 기존의 교과서를 가지고는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사회적 영역을 모두 포괄한 전체적인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수업이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이해’ 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교육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이 학생들의 생활과 연계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국 교과서는 임파워먼트 관련 개념을 58% 다루고 있지만 그마저도 학생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즉 자기이해, 자기통제력을 길러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갖도록 하기보다는, 개념을 정의하고 전략을 나열하는 등 내용 전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기보다는, 또래나 가족 간의 상호작용 기술을 익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은, 개념을 잘 설명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삶의 질을 스스로 향상시키는 데 지향점을 두고 진

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파워먼트란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공동체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실천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Park, 1995). 따라서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제대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세 영역을 고르게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과서는 독립심, 리더십, 책임감, 시민의식과 같은 사회 참여적 내용요소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정생활’ 영역의 학습 지향점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독려하는 교육내용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집필, 후속 연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 개정될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교과서 집필에 비판적 관점의 청소년 교육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한국 교과서는 청소년을 과도기적 주변인으로 인식하여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이 남아 있었다. 그러다보니 교과서의 내용이 직업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이론을 설명하거나 기술을 효율적으로 단련시키는 학습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청소년을 고유한 개성을 가진 존재, 능동적 변화의 주제로 인식하고 그들이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단원의 관점을 비판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검정 지침에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에 초점을 둔 가정과교육 내용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과 교사는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이라는 가정과교육의 역할과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교육내용 검토에 한정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요소일지라도 어떠한 관점에 따라 서술되고 활동과제로 제시되는 가는 교사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전체적인 수업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이후에는 교과서의 교육내용 전달방법을 질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에 초점을 둔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대안적 틀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Ahn B-H (1985). *Validation study for scales relating to interpersonal relations adequ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Bae J-M, Kim D-M, Jung S-K, Kang T-H, & Park H-J (2010). 2010 A National survey of youth risk behaviors. *2010 Youth Counseling Research 154*, Seoul: Korea Youth Counseling.
- Baldwin, E. E. (1990). Family empowerment as a focus for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Home Economics Education*, 8(2), 1-12.
- Bolton, B. & Brookings, J. (1996). Development of a multifaceted definition of empowerment.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39, 256-264.
- Bolton, B. & Brookings, J. (1998).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ra personal empowerment. *Rehabilitation Psychology*, 43(2), 131-142.
- Brown, M. M. (1978). *A Conceptual scheme and decision rules for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ents*. Madison, WI: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 Chung O-B, Kim K-E, & Park Y-J (2005).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mpowering youth progra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7(3), 17-33.
- Gook Y-H & Kim K-M (2008). A Study on effects of short-term empowerment programme for juvenile parolees.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3(1), 397-410.
- Gutierrez, L. M., Parsons, R. J., & Cox, E. O. (1998). *Empowerment in social work practice*.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translated by Kim et al. (2006). *사회복지실천과 역량강화*. Seoul: Nanum house
- Han J & Chae J-H (2011). The development of home economics teaching-learning program applying keller's ARCS model on the unit of 'youth sex and peer relationship'.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4), 87-103.
- Han M, Choi I-C, Kim B-J, Lee H-J, Kim K-M, & Ryu S-A (2012). Happiness of Korean adolescence: age-based comparis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5), 217-235.
- Hyun H-S & Kim Y-S (1999). Relationship of adolescent ego-identity and adaptability to family and school lif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1), 249-262.
- Joo A-R & Park I-H (2010) Effects of an empowerment education program in the prevention of internet games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 Nurs*, 40(2), 255-263.
- Kim H-S (2002a). Development of a measure of youth empower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4, 91-113.
- Kim H-S (2002b). *A study on readiness for self-sufficiency of poor adolescents: analyzing mediator effect of empower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Y, Oh K-J, & Yoon G (1991). A Study of interrelation between self-concept, conformity to peer group and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1), 199-212.
- Kim S-Y, Cho H-R, & Nho C-R (2004). *Youth welfare*. Paju: Jimmundang.
- Kim Y-R (2006). *Effects of empowerment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focusing on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incheon and gyeonggi-do*.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B & Lee Y-S (2011). Middle school student's educational interest and perception of usefulness on the contents of the unit of 'understanding of adolescents' in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1), 53-71.
- Lee S-J & Nam Y-O (2008). Effects of empowerment on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experienced high risk stress. *Mental Health Social Work*, 30, 136-161.
- Lee Y-S (2010). An Analysis on the units of 'adolescence self-management' and 'adolescence consumption life' in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used in middle schools: focusing on how the emphasis of the 2007

- curriculum revision is reflected.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3), 55-75.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8). *Manual for middle school curriculum guideline(III): mathematics, science,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Hansolsa.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Practical Arts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Separate volume(10)*.
- Park M-J (2006).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future home economics education: focusing on identity, empowerment, and vi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Park M-J (2008). Development of empowerment scale instrument and needs assessment of home economics teachers' empower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3), 131-143.
- Park W-W (1995). *Empowerment와 기업문화, 자율과 혁신의 기업 문화*. Seoul: Samsung Moral Culture Research Institute, 63-97.
- Park W-W (1997). Empowerment: its meaning and application. *Korean Management Review*, 26(1), 115-138.
- Parsons, R. (1999). Assess helping process and client outcomes in empowerment practice.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edited by Shera, W. & Wells, L. M. Canadian Scholars' Press Inc. translated by Lee et al. (2002). *사회복지에서의 역량강화실천*. Paju: Yangseowon.
- Peterson, N. A., Lowe, J. B., Hughey, J., Reid, R. J., Zimmerman, M. A., & Speer, P. W. (2006). Measuring the Intrapersonal Componen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ociopolitical Control Scal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 287-297.
- Seo B-Y (1986). Establishment of adolescents self-identity. *Proceedings of the 86 Fall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Symposium*.(pp.1-8)
- Solomon, B. B. (1976). *Black empowerment*. Columbia University Press.
- Yoon H-J, Mun Y-J, Chu B-W, & Seok D-Y (2010). Research on the textbook policy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national curriculum system.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 RRC 2010-16*, Seoul: KICE.
- Yu P-S (2008). The effect of the empowerment on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1), 171-196.
- Zimmerman, M. A. (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ssues and illustra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5), 581-599.
- Zimmerman, M. A. & Zahniser, J. H. (1991). Refinement of sphere-specific measure of perceive control: development of a sociopolitical control scal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 189-20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입파워먼트 형성에 초점을 둔 가정과 교육내용 선정 및 구성을 위해, 한국과 미국 가정과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어떠한지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7종과 6~8학년 미국 교과서 4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내용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입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23개의 가정과교육 내용요소를 선정하였다. 개인내적 입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내용요소로는 발달, 개성, 유전과 환경, 가치와 목표,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신감, 정서, 스트레스의 9개, 대인관계적 요소로는 사회성, 역할, 친구, 의사소통, 갈등해결, 의사결정, 필요와 욕구, 자원관리, 우선순위의 9개, 사회적 요소로는 도덕성, 독립심, 리더십, 책임감, 시민의식의 5개가 선정되었다.

둘째, 이를 기준으로 한·미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교과서는 23개의 내용요소 중 58%, 미국 교과서는 90%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한국 교과서는 학생들이 청소년 입파워먼트 관련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한편 미국 교과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개념들과 학생들의 삶을 관련짓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미 교과서 모두 사회적 입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요소를 가장 적게 다루고 있었다(한국: 37%, 미국: 70%).

■ 논문접수일자: 2015년 08월 28일, 논문심사일자: 2015년 09월 01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09월 21일